

“노숙 생활 끝, 이제 집에서 따뜻한 밥 해 드세요”

재능기부 스토리

삶의 경계선서 다시 선 이웃들

‘나눔 있는 삶’ 컴퓨터부터 가전·식료품까지 희망 전달 사기 피해·암 투병 견딘 이웃 응원 ‘두 번째 인생 티켓’

국제라이온스클럽 355-B1지구 호남라이온스클럽 조민준 L 회장님과 회원들이 직접 광주재능기부센터를 방문해 컴퓨터 4대를 기부해주셨습니다.

호남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광주재능기부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기존 컴퓨터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공사 대상자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부에 동참해주신 국제라이온스클럽 호남라이온스클럽 전 안전철 회장과 현 조민준 회장, 그리고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0대 후반 김 모 할머니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할머니는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 노인세대입니다. 젊은 시절 사고로 다쳐 중증 지체장애를 가지고 생활해 오고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치매와 우울증 등으로 더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체장애로 인해 누워있기 힘들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으며, 1주일에 3번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자녀 두 명은 모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김 할머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집안일을 하고 있으며 병원에 갈 때는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변 줄을 차고 있어서 움직이기 원하지 않고 식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냉장고가 고장 나 음식 보관이 힘들어 식사에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냉장고를 구입해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각종 건강식과 식품류들을 구입해서 함께 지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몸도 아프고 우울증도 심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0대 김 모 여성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현재 중장년 1인 세대로 생계



컴퓨터를 기부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한 국제라이온스클럽 355-B1지구 호남라이온스클럽 회원들.

급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지인의 명의도용과 사기를 당해 막대한 금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변제를 해야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해 대출 상환 압박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위암 판정에 따라 위절제 수술을 받았고, 척추골절로 지체장애 판정까지 받는 등 어려움이 겹쳤습니다.

월세와 공과금까지 밀리다 보니 집을 나와서 생활하는데, 오갈 데가 없어 친구의 미용실에서 거주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친구가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주거상향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주택

은 마련이 되었지만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구나 가전은 전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지인이 사용하던 세탁기를 가져왔지만 너무 오래돼 고장이 났고 수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빨래를 하는데, 건강이 좋지 못한 김 씨는 빨래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도 없어 집안에서 명하니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가장 불편한 부분인 세탁기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주방용품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김 씨는 “최악으로 치닫는 인생을 한탄하며 사는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이제 집도 생기고 하나들 살림도 생기니 살아가야 할 목표가 세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씨가 현재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0대 김 모 씨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많은 빚에 시달리게 되었고 부인과는 이혼을 하였으며 결국 집까지 날려 노숙생활으로 내몰렸습니다.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다보니 예전에 가족과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떠올라 괴로움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노숙 생활은 장기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서기센터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노숙인 임시주거비를 지원받아 모텔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뒤엔 보증금이 없는 월세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지만 오랜 시간 노숙생활을 해오던 터라 살림살이가 전무했습니다.

당장 식사를 해결해야 하지만 취사도구나 냄비 등 주방용품이 하나도 없어서 밥을 해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생활용품이 전혀 없었으니 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려고 했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채무관계에 얽혀있어 부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도와줄만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는 간편식이나 음식들을 대워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 구입해 설치했고, 생활용품과 주방용품을 구입해 지원했습니다.

김 씨는 인생의 상당 시간을 노숙생활로 보내다가 이제는 집도 생기고 주변에서도 도움을 주는 분들도 생겨 삶에 대한 의욕이 되살아나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센터에 대한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062-431-0918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